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 기초연구

A Practice Model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among Remarried Families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수 김유정*

Dept. of Social Welfare, Kyungshung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Yoojung

<Abstract>

Remarriage has been prevalent in Korea since the mid-1990s. Remarried families have reported that they face many challenges and difficulties. Life for those who remarry can worsen when the children from a previous marriage live together with new family members. It is interesting that some remarried families adjust well while others do not.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 practice model for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remarried families with childre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and support remarried families, the resilience perspective was chosen, focusing on a strengths perspective with developmental, ecological, and preventative perspectives. In terms of resilience, the proposed practice model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ree concepts: belief systems, organizational patterns, and communication. The model can be used to help remarried families accomplish adequate integration by growing as a new family and can prevent another divorce. Moreover, it can assist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develop programs and policies with a strengths perspective rather than a deficit or problem-oriented perspective. Based on the model, various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remarried families. The development of supportive programs is suggested. These can include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remarriage life education programs, interactive web-based programs, and family camps. For a long time, remarried families have been labeled as abnormal and atypical owing to the normal family myth. This negative perception of remarried families must be altered so that they are accepted with a positive outlook in a society. For further studies, the development of diverse supportive adaptation programs for various types of remarried families and active research on them are recommended. The practice model can assist with the adaptation and growth of remarried families by strengthening their resilience.

▲주요어(Key Words) : 재혼(remarriage), 재혼가족(remarried families), 레질리언스(resilience), 실천모형(practice model)

I. 서론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재혼가족의 증가이다. 지난 10년간 혼인유형에서 남녀 초혼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재혼의 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재혼남-재혼녀의 결혼이 늘어났으며 평균 재혼 연령이 높아졌다. 통계청 자료(2011)에 따르면 2010년 전체 결혼에서 어느 한 쪽이 재혼인 경우는 9.6%이며 재혼남-재혼녀가 결혼한 비율은 12%로, 10명 가운데 1~2명은 양쪽 모두 재혼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재혼연령도 남성 46.1세, 여성 41.6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황혼 재혼의 증가와도 관련되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중반에서 40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유정 (E-mail : yoojungkim@ks.ac.kr)

대 중반 연령대의 이혼율이 높다는 점도 이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재혼은 이혼 후 재혼이 평균 36,125건, 사별 후 재혼은 평균 3,541건으로 나타나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의 수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2).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재혼가족을 초혼가족보다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인 가족', '불완전한 가족'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노년기의 재혼(Choi & Lee, 2000; Choi, 2005; Lee, 1997; Kim, 1997; Park, 1997; Park & Bae, 2005)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재혼모에 대한 연구(Jang, 2010; Kim, 1999, 2002; Lim, 1997)를 비롯하여 재혼가족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장혜경·민가영, 2001; Chung et al., 2000; Hyun, 1998, 2002; Lim & Chung, 1997; Kim, 2004; Kim, 2006; Kim, Um, & Park, 2010; Park & Kim, 2010)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재혼가족의 이혼율 상승에 따라 다시 해체된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Kim, 2007)를 새롭게 하고 재혼가족의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재혼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Chung, et al, 2000; Hyun, 2002; Kim, 2004; Lim, 2006)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실천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일회성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한편 재혼가족과 관련된 모형의 기존 국내연구는 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FIRO 모형(Hyun, 1998, 2002)과 생태체계 관점의 Bronfenbrenner 모형(Kim, 2005)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재혼가족의 강점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을 간과하는 그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혼이라는 삶의 도전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삶을 이어가는 재혼가족의 상호과정을 강화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 기초하여 실천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레질리언스 관점은 재혼가족의 문제보다는 강점에 중점을 두고, 위의 선행연구(Hyun, 1998, 2002; Kim, 2005)에서 다루어진 발달론적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뿐만 아니라 예방적 관점까지 포함하고 있다(Walsh, 1998).

다수의 재혼가족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적응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Golish, 2003). 가족 레질리언스는 문제해결과 성장을 위한 가족들의 잠재력을 확산하며, 역경에 처한 가족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삶의 도전을 받고 있는 가족으로 여겨 그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Walsh, 1998). 또한 레질리언스 관점은 제시된 도전과

제의 해결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도전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예방의 차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레질리언스의 관점에서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하고자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혼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자녀에 대해 연구하면서 레질리언스를 그들의 적응요인으로서, 혹은 보호요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Gosselin & David, 2007; Gosselin, 2010; Walsh,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데 가족 레질리언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정 아래, 재혼 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전혼(前婚)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한 재혼가족(Bemstein, 2000; Booth & Edwards, 1992; Hyun, 2003; Jang, 2010; King, 2009; Lim, 2006)을 대상으로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해 재혼가족과 레질리언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모형은 이혼의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재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두 번째 기회'로 주어진 상황을 잘 이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재혼가족의 적응 및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혼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해체되기 쉬운 재혼가족(Coleman, Ganong, & Fine, 2000; Jang, 2010; Kim, 2007)의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 재혼가족의 이혼을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재혼가족의 개념과 현황

재혼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용어는 재혼가족의 유형만큼 다양하다.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은 두 핵가족의 결합을 나타내는 '이중핵가족(binuclear family)', 가족의 구조가 재구성된다는 의미의 '재구성가족(reconstructed family)', 두 가족이 합쳐져서 섞였다는 의미의 '혼합가족(blended family)' 등의 용어와 같이 혼용되고 있다(Ganong & Coleman, 1994).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의붓 가족, 계부모 가족(step famil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Kwon et al., 2006). 종합적으로 재혼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재혼가족은 다양

하고 복잡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혼의 핵가족보다 가족으로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양쪽 부부가 전혼에서의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는 가장 복잡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Ceballos et al, 2004; Kim, 2006; Kim, Um, & Park, 2010; White & Booth, 1985). 재혼가족에서 전혼으로부터의 자녀는 갈등의 요인이나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가장 적응하기 힘든 유형이라 볼 수 있다(Rogers & Rose,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의 용어를 '이혼 후 전혼(前婚)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혼인한 가족'으로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재혼한 부모 '각각의 전혼 자녀 유무'와 이들에 대한 양육권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매우 복잡한 재혼가족 유형을 보이는 반면(Clingempeel & Segal, 1987), 한국에서의 재혼가족 유형은 주로 성별과 초혼·재혼여부를 조합하여 재혼남-재혼녀, 재혼남-초혼녀, 초혼남-재혼녀로 구분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점차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늘어나, 재혼가족의 구성에서 과거 다수를 차지하던 재혼남-초혼녀의 결합보다 재혼남-재혼녀의 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 재혼가족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핵가족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오인하기도 하지만, 재혼가족은 전혼(前婚)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계자녀와의 관계 성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1; Hyun, 2003; Lim, 2006; King, 2009; Jang, 2010). 전혼(前婚)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자녀들은 전혼과 재혼을 포함한 두 가구의 구성원이고, 친부모가 그들의 현실과 기억 속에 존재한다. 또한 재혼가족에서는 많은 상실과 변화가 있는 이후에,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 및 문화와 직면하게 되어 갈등이 야기되거나 혹은 타협을 통하여 공유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Kim & Ha, 2011; Visher, Visher, & Pasley, 2003). 특히 재혼가족은 배우자간의 유대관계보다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오래 이어져 왔으므로 가족생활주기상의 불일치가 크다(Cater & McGoldrick, 1999; Pasle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 따라서 전혼에서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계부모-자녀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부재하며, 가족체계가 정서적으로 친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들은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을 역할 혼란에 빠뜨리고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Chung, et al, 2000).

재혼가족의 출현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재혼가족의 이혼율은 초혼가족보다 높으며 두 번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oleman, Ganong, & Fine, 2000). 특히 다양한 재혼유형 중에서 양측 배우자 모두 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가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mstein, 2000; Booth & Edwards, 1992).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이, 앞으로 재혼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혼의 빈도수와 상관없이 이혼 유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혼 후 가족해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자료(2009)에 의하면 남녀 모두가 재혼인 경우의 이혼상담 비율은 2005년 5.6%, 2006년 6.6%, 2007년 6.9%로 점차 증가하여 2000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재혼가족의 이혼상담 증가는 초혼보다 복잡한 재혼가족의 갈등과 마찰이 또 다른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의 이혼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 재혼가족의 원활한 적응과 이혼의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재혼가족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재혼가족은 재혼가족의 형성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초혼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국내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재혼가족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및 도전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재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재혼가족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서 비롯하며 실제 재혼생활을 실망과 좌절로 이끌 수 있다. 재혼가족도 초혼가족과 같을 것이라는 '정상 핵가족의 신화'와 재혼가족은 이미 가족으로서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어 빨리 통합될 것이라고 여기는 '즉각적인 적응의 신화'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연결된다(Kim & Ha, 2011; Visher, Visher, & Pasley, 2003). 또한 재혼가족은 재혼 후 애정이 즉시 생길 것이라는 믿는 '즉각적 애정(instant love)의 신화'도 재혼가족으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어 갈등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Turnbull & Turnbull, 1977).

둘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다(Kim, 2006, Kwon et al, 2006; Lewis, 1980). 이런 갈등은 분노, 배신감, 질투, 죄책감 등의 복잡한 정서를 수반하며 재혼가족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나타난다(Kim, Um, & Park, 2010; Pasley & Ihinger-Tallman, 1989). 전혼(前婚)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새 배우자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계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계부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계자녀에 대한 애정에 대해 갈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도 계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현재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에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 계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가 충성심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아동기의 자녀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Kennedy, 1985; Kim, 2006; Kim, Um, & Park, 2010; Lutz, 1983).

셋째, 재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내 경계 모호성과 역할 혼란'으로 새로 형성된 가족 내에서 관계 형성 및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Kim, Um, & Park, 2010). '경계 모호성'은 누가 가족 경계의 안에 또는 밖에 있으며, 가족체계 내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Boss & Greenburg, 1984; Pasley & Ihinger-Tallman, 1989). 재혼부부는 새로운 결혼관계에서 전혼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Jang, 2010). 반면, 자녀들은 전혼의 확대 가족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새로운 확대가족 구성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와 역할의 혼란은 자녀들과 계부모, 계형제들 간의 유대를 방해하기도 하며 가족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은 명확한 재정의(reframing)를 통해 역할 혼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2006; Visher, Visher, & Pasley, 2003).

넷째, 재혼가족은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재혼가족 내 자원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즉, 돈과 같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애정과 같은 정서적 자원에도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관리는 재혼한 부부와 그들의 전(前)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Ganong & Coleman, 1994). 따라서 부부는 재혼 이전 혹은 재혼 초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자원의 분배 문제를 명확히 논의하여, 차후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은 계형제와 물건,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도 낯선 계형제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 상실감을 가지면서 분노할 수 있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그러므로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원의 분배가 적절하지 못할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재혼가족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계자녀에 대한 동정적 편견은 재혼가족의 자녀들을 문제아나 불행한 아이로 인식하도록 하기도 한다(Coleman, Ganong, & Fine, 2000; Kim, Um, & Park, 2010; Lim, 2006; Sohn, 2009).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또래 및 타인으로부터 냉대를 경험하기도 하며, 새로운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재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기도 한다(장혜경·민가영, 2001; Visher, Visher, & Pasley, 2003).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결여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재혼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적응을 도와줄

교육 및 상담기관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다(Higginbotham, 2009; Kim, 2004; Lim, 2006).

3. 가족 레질리언스와 국내 선행연구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생활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레질리언스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Patterson, 2002).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커다란 위기나 변화를 겪을 때 그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이에 직면할 수 있는 가족의 장점과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구성원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98). 또한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을 헤치고 최선의 성장을 이루도록 가족을 재생시키는 힘이며(Patterson, 2002), 가족이 실패에서 회복하고 곤경으로부터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olin & Wolin, 1993). 이렇듯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지속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거쳐 점차 성장한다(Walsh, 2002).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은 다양한 가족유형을 대상으로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들의 가족 적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알코올중독자 가족(Jang, 2001), 한부모 가족(Hyun, 2007; Park, 2007; Song, 2006; Suh, 2002), 입양가족(Choi, 2007), 중년기 부부(Choi, 2009), 북한이탈주민 가족(Kim, 2011) 등과 같이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다. Jang(2001)은 알코올중독 가족을 대상으로 레질리언스 증진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전이를 예방하는 시각에서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입을 주장하였다. Choi(2007)는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에 따라 총 5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레질리언스에 근거한 프로그램은 입양준비의 변화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다른 예비입양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레질리언스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i(2009)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총 4회기의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였는데, 부부 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1)은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레질리언스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이미 탈북과 도피라는 역경을 이겨낸 북한이탈주민의 삶에서 레질리언스를 이끌어내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남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의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 혹은 그 자녀와 관련된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족유형 중에서 가장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Hyun, 2007; Park, 2007; Song, 2006; Suh, 2002). Suh(2002)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과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06)은 부모의 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대학생들은 레질리언스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7)은 이혼자녀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나타났지만, 레질리언스를 통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Hyun(2007)은 한부모 가족의 적응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가족 적응에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 레질리언스는 그 가족이 삶의 과정에서 도전들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역경에 처한 가족의 적응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는 가족의 문제와 결점에 중점을 두던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의 성장과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제까지의 국내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을 적용하여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하고자 심도 있게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재혼 가족의 자녀를 연구하면서 자녀들의 적응요인으로서, 레질리언스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Gosselin & David, 2007; Gosselin, 2010; Walsh, 1998).

4. 레질리언스와 재혼가족의 적응 특성

Carter와 McGoldrick(1999)에 의하면 재혼은 가장 어려운 전환기로 제시된다. 재혼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실, 고통, 모호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재혼과정에 내재된 복잡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이 적절하게 통합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가족관계의 상실을 애도하고 새로운 가족의 전통이 구축되어야 하며, 같이 생활하지 않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유대가 재협상되어, 자녀가 갈등 없이 두 가구에서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따라서 재혼가족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으로서, 역경의 회복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자원이 풍부해지며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여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즉,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은 가족의 실패보다는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며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레질리언스 접근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으로 적응한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새로 구성된 가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다. 이것은 재혼가족의 생활에서 즉각적인 사랑과 적응에 대한 기대나 혹은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같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Visher & Visher, 1990). 이러한 ‘현실적 기대’를 가진 재혼가족은 사랑과 보호의 감정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재혼가족과 초혼가족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Park & Kim, 2010).

둘째, 재혼가족은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변화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되지 않은 슬픔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므로, 상실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만족스러운 재혼가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두려움, 기대, 분노, 그 밖의 많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Ganong, Coleman, & Jamison, 2011; Rogers & Rose, 2002). 특히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는 재혼자녀들에게 조부모, 이모, 삼촌 그리고 사촌 등 전혼의 확대가족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은 상실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Walsh, 1998).

셋째, ‘부부간의 견고한 관계’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재혼가족의 중요한 특성이다(Kim & Ha, 2011). 특히 재혼가족 내에서 모든 일을 같이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부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된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olman, Ganong, & Fine, 2000). 부부간의 견고한 관계는 부부에게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다시 이혼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근심을 감소시켜 준다. 또한 계부모는 부모-자녀의 관계 유지를 존중하고, 협력적이며 따뜻한 가족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Ganong, Coleman, & Jamison, 2011).

넷째, 새로이 구성된 재혼가족이 가족으로 성장하려면, ‘적절한 가족관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계부모-계자녀 사이, 그리고 계형제-자매 사이의 상호관계의 발전은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Kim & Um, 2006; Kim, Um, & Park, 2010). 자녀들에 대한 계부모의 지위는 획득된 것이 아니라, ‘덤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부모는 계자녀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Chung et al., 2000; Rogers & Rose, 2002; Celbaro et al., 2004; Lim, 2006). 특히 재혼 초기의 관계에서 유래되는 스트레스가 따뜻함과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과거 각기 다른 가정환경

에서 살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생활을 영위 하던 두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가족 규칙의 재 확립'을 통해 재혼가족의 구조 안에서 일상사와 기념일을 축하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 규칙의 재확립은 새로 형성된 가족 구성원이 과거 가족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면서, 그 수행방법 과 가족행사를 서로 공유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부여한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은 일상생활에 대한 가정의 규칙을 적절하게 재확립하며, 이런 결정에 동반되는 창조성과 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

여섯째, 재혼 이전에 독립된 생활을 영유하다가 재혼을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 가족 구성원들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재혼을 통해 새로이 형성된 형제 관계와 친인척 관계에 적응하면서도, 이러한 관계들을 재혼 이전 가족체계의 관계망들과도 함께 유지해야 하는 것에 더욱 혼란스러워 한다(Pasley & Ihinger-Tallman, 1989). 그러나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자신이 속한 여러 가족 사이에서 적절하게 모든 일을 조정하며 적응한다. 따라서 계부모는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 계자녀들의 특성을 깊이 인식 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런 노력은 자녀에게 더욱 다양한 상호관계와 그 경험을 제공한 다(Visher & Visher, 1989; Chung et al, 2000).

이제까지 살펴본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 및 그에 대한 이해는 많은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헤치고 성장하여 성공적인 적응의 단계에 이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재조명한다면, 재혼가족 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 재혼가족과 관련된 기존의 모형 연구

재혼가족과 관련된 모형 연구로는 가족 FIRO 모형 (Hyun, 1998, 2002)과 Bronfenbrenner의 모형(Kim, 2005)이 대표적이다. 첫째, 가족 FIRO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모형은 발달이론에 기초한 모형으로서, 가족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변화나 발달적 전환에서 가족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Doherty & Colangelo, 1984). 따라서 가족 FIRO 모형은 획기적인 변화, 전환, 그리고 재정립 과정을 경험하는 재혼가족에게 적합한 모형으로 가족은 재혼 과 같이 커다란 전환을 경험할 때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 낸다. 그 후 가족 상호작용은 포용(inclusion), 통제(control), 친밀감(affection)의 순차적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복합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용은 가장 우선

순위로 작용하며 그 후 순서에 따라 통제와 친밀감이 대처하게 된다(Doherty & Colangelo, 1984). 이러한 가족 FIRO 모형을 기반으로 재혼가족의 적응발달에 관하여 연구한 Hyun(1998, 2002)은 복합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재혼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단계별 순차적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문제 해결 및 적응을 지원하였다. 재혼가족은 각 구성원의 경계와 역할의 설정을 통해 재혼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하는 포용단계를 거친 후에야 훈육, 자원 배분 등과 같은 갈등에 대해 가족규칙의 확립을 통하여 협조적으로 통제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가족은 진실된 마음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즉, Hyun(1998, 2002)은 재혼가족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가족 FIRO 모형의 각 단계를 순서적으로 거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Bronfenbrenner 모형(1979)의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을 다양한 체계와 맥락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여러 제도 및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 및 가족,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가족의 특정 상황이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든 체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부적절한 개인이나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그 변화의 초점으로 보아 가족기능에 관련된 개입이나 지지망 구축에 유용하다. 그러므로 Bronfenbrenner의 모형은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의 해결이나 가족 적응에 대해 가족 내부의 변화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계부모-계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재혼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Kim(2005)은 Bronfenbrenner 모형에 기반하여 재혼가족과 그 주위 환경과의 상호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Kim(2005)은 재혼가족의 구성원 개인을 다양한 체계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개인-과정-맥락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개인적 변인으로 계자녀의 성별과 연령이 다루어졌으며, 가족과정 변인으로는 가족 경계의 모호성, 역할 갈등, 양육방식, 부부관계, 공동자녀 등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사회적 지지, 재혼가족의 유형, 경제적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즉, Kim(2005)은 Bronfenbrenner의 모형에 기초한 개인, 가족, 환경과의 상호 보완성을 통해 재혼가족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보다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발달론적 접근은 재혼가족의 발달과 성장을 강조하였으며, 생태체계적 접근은 재혼가족의 적응에 대하여 가족 내부만이 아니라 가족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각의 관점은 그 한계점을 나타낸다. 먼저 가족 FIRO 모형은 순차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과업 완수가 강조되므로 다음 단계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또한 Bronfenbrenner의 모형에서

는 개인적 역량의 변화나 선택보다 환경의 영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실천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레질리언스 관점은 위에서 제시된 발달론적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과 더불어 예방적 관점까지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정점이 있다. 레질리언스 관점은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변화·성장하는 잠재력을 믿으며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Yang, 2005). 그러므로 본 연구는 Walsh가 제시한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강점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레질리언스 접근을 통해 기존의 모형들보다 더욱 통합적인 레질리언스 강화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

1.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재혼 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전혼(前婚)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혼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하는데 가족 레질리언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실천모형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의 재혼가족 중에서 이혼 후 재혼하는 가족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의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현황의 검토를 통하여 재혼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Kim & Ha, 2011; Kwon et al, 2006; Turnbull & Turnbull, 1977; Visher, Visher, & Pasley, 2003),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충성심 갈등(Lewis, 1980; Kim, 2006; Kim, Um & Park, 2010; Pasley & Ihinger-Tallman, 1989), 가족 내 경계 모호성과 역할 혼란(Ganong & Coleman, 1994), 재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Coleman, Ganong, & Fine, 2000; Lim, 2006; Kim, Um, & Park, 2010; Sohn, 2009) 등이 재혼가족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의 극복에 중점을 둔 모형의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문헌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성공적인 적응 및 성장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의 특성으로는 재혼생활에 대한 현실

적인 기대(Visher & Visher, 1990), 상실감과 변화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Ganong, Coleman, & Jamison, 2011; Rogers & Rose, 2002), 부부간의 견고한 관계(Colman, et al., 2000; Ganong, Coleman, & Jamison, 2011), 적절한 가족관계의 형성(Celbaro et al, 2004; Chung et al., 2000; Lim, 2006; Rogers & Rose, 2002;), 일상생활에 대한 가족 규칙의 재확립(Visher, Visher, & Pasley, 2003), 가족 간의 상호협력(Chung et al, 2000; Visher & Visher, 19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적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은 가족 레질리언스의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혼가족이 자신의 잠재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 기초한 실천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Walsh(1998, 2002)가 제시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에 따라 재혼가족의 지원 방안을 도식화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는 신념체계(believe systems),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개념적 틀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의 개념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Walsh, 1998). 따라서 재혼가족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해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을 포함한 가족 레질리언스를 실천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실천모형은 문헌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혼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재혼가족의 적응을 이해하고 그들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

1)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의 기본 관점

재혼가족은 초혼의 핵가족과 비교하여 불완전한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직도 재혼가족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문제 중심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점차 재혼가족 내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재혼가족의 적응 및 발달을 부각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Chung et al, 2000; Kim, 2005; Kim, 2006; Kim, Um & Park, 2010). 즉, 재혼가족은 정상가족과 다르다는 문제 지향적이고 병리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편견 없이 재혼가족에 대해 이혼이나 사별의 상실로부터 긍정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강점과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여긴다(Golish,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점 관점을 핵심으로 생태체계 관점, 발달론적 관점, 예방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Walsh, 1998)을 실천모형의 틀(framework)로서 택

하고자 한다. 첫째, 강점 관점은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강점을 찾고 이를 가족관계에 적용하도록 지원해 준다. 그러므로 재혼가족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생태체계 관점은 가족을 다양한 사회체계와 연결되어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 따라서 이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Bronfenbrenner, 1979)'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재혼가족이 확대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발달론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재혼가족 역시 변화·발전할 수 있으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적응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Walsh, 1998). 넷째, 예방적 관점은 현재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미래의 도전에도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심리사회적 예방접종(Walsh, 1998)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방적 관점은 재혼가족에 대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2)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의 구성 요소

(1) 신념체계(Belief systems)의 변화

① 재혼에 대한 의미 부여: 삶의 도전으로서의 수용 과 가족 결속력의 강화

재혼가족은 재혼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어려움을 인생에 있어서의 '도전(challenge)'으로 수용하여 가족관계에 기초한 협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당면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재혼을 생활주기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인지적 재구조화가 시도되어야 한다(Walsh, 1998). 그러므로 재혼가족이 이혼으로부터의 위기와 역경을 잘 이겨냈던 이전의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 위기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을 확인하고 어려움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이혼과 같이 과거의 역경에 잘 대처하며 성장했던 때를 기억하고 재혼가족으로서의 어려움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혼생활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족의 참여는 가족 결속력의 강화를 유도하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긍정적인 전망: 새로운 가족 탄생에 대한 희망과 현실적 기대의 추구

가족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은 가족의 장점과 잠재력을 강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변화에 참여하며, 용기와 인내를 발휘하게 한다(Walsh, 1998). 재혼 가족에게 있어서 재혼은 가족의 재구성을 통해 이전에 경험한 가족해체의 손상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욕구의 표현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에 의해 재혼가족은 빨리 통합될 것이라는 즉각적 적응의 신화나 재혼가족에서 즉시 애정이 생길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다(Kim, 2004; Park & Kim, 2010; Visher & Visher, 1990). 그러므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하여 새로운 가족 탄생에 대한 희망의 추구를 도모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족지원 서비스로서 재혼 이전에 '재혼준비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영성(Spirituality): 영성의 재해석 및 종교기관 활용

종교나 영성은 가족이 어려움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지지체제로 작용하며, 개인적인 믿음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신념을 지지해 준다(Walsh, 1998). 그러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면 종교기관과 연결하여 신앙생활을 공유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종교기관은 사회적 연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감과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 종교의 활용은 매우 유용하다(Kim, Um, & Park, 2010). 또한 종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가족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죄책감을 완화하고 새로이 이룬 가족이 적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① 융통성 강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규칙 등의 재조정 '융통성'은 도전을 재조직하고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이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관계의 장기적 성공을 예견하는 요인으로 적응성, 융통성, 변화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Walsh, 1998). 부부 간의 융통성 있는 역할의 재조정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녀양육에 참여(Ganong, Coleman, & Jamison, 2011; Sohn, 2009)하도록 하며, 자녀간의 서열도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제·자매간의 역할도 재조정된다. 그리고 가족규칙의 재조정은 전혼가족 각각의 역사와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거나, 또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전혼가족의 역사와 문화와는 전혀 관련 없이 아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적절한 재조정을 위해서는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역할극의 참여나 가족구성

원들이 참여 가능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같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또는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가정생활을 관찰하며 그 가족의 변화과정을 조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② 연결성 향상: 재혼한 부부의 관계 강화

'연결성(connectness)'은 가족 구성원이 자율, 분리와 동시에 연합, 상호지지, 상호협력하는 것을 뜻한다(Walsh, 1998). 재혼한 부부는 이미 전혼에서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를 배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부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Hyun, 2003). 그러나 부부관계의 강화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계부모-계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확고한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Chung et al., 2000; Visher, Visher, & Pasley, 2003). 부부관계의 견고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혼에 대한 남편의 기대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Kim, 2004). 만약 재혼 이전이나 재혼 직후에 새로운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미 친밀감을 형성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부부의 재혼생활의 적응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Lee, 2004).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재혼부부들이 재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동질집단'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참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Chung et al., 2000; Hyun, 2002; Kim, 2004; Lim, 2006).

③ 사회적 자원 동원: 확대가족의 활용, 지지집단 형성 과 활용

가족들이 스스로 견디어내고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지지와 가족의 외부자원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종류의 집단이던지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삶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Walsh, 1998). 특히 재혼 이전의 확대가족의 지지는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Visher, Visher, & Pasley, 2003),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과 같은 확대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재혼가족의 성장을 도와준다. 한편, 재혼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는 재혼가족 각각의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는 '동년배(또래) 지지집단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지집단(support group)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년배(또래) 지지집단의 형성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

(3)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강화

① 개방적인 의사소통: 계부모-계자녀 의사소통 강화. 가족 간의 대화 훈련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족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나 정서 표현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화적 분위기로 인하여,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과 계부모-계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갈등해결은 수월해지며,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재혼생활의 질도 높게 나타난다(Chung et al, 2000). 이는 재혼가정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기능도 원활하다고 보고한 Kim(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재혼가족의 성공적인 적응도 용이해진다는 전제 아래, 가족 간의 정기적인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권장하도록 한다. 한편, 자녀를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King, 2009). 특히 이복형제와의 관계, 친부모와 계부모와의 관계 형성, 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방법, 비혈연 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위협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혼가족 자녀들을 위한 '또래집단 상담'이나 '캠프활동'을 통해 비슷한 환경에 처한 다른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나 대화법을 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협력적 문제 해결: 갈등 해결 및 대안의 탐색 유도

재혼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부부, 계부모-자녀, 계형제·자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또는 그 경계와 역할의 모호함으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혼(前婚)가족과 현재 가족 사이에서 오는 충성심의 갈등이나, 다른 두 가족의 역사와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은 재조명되어야 하는데(Kim, 2004), 이러한 갈등의 완화를 위한 창조적 대안은 가족들이 같이 협력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의견의 수용 또는 적절한 대안의 선택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의 협력적 해결을 지원하는 '재혼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재혼생활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해결 및 완화에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Lim, 2002).

3)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의 활용 및 의의

본 연구에서 레질리언스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관점보다 점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이 경험하는 도전과 반응에 융통적이고 진화론적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인 '재혼'에 직면한 가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혼가족이 잠재력을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기초한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을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모형은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초혼가족과 차별화되는 가족의 기능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강조한다. 재혼가족은 '신념체계의 변화'에서 '재혼'이라는 인생의 선택적 도전을 준비하고 그 도전에 의한 어려움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수용해 나가는데, 재혼 이전의 준비프로그램은 그들의 어려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장혜경·민가영, 2001; Chung, et al., 2000; Hyun, 2002; Kim, Um, & Park, 2010)의 결과에 의하면 재혼가족의 대부분은 재혼이 초혼가족과 다르다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재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 재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은 부부 두 사람의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재혼생활에 보다 현실적 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gginbotham, Miller, & Niehuts, 2009; Kim, 2006).

'조직 유형'에서 재혼가족은 가족의 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지집단 및 확대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 나아간다. 이것은 재혼가족 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갈등을 점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과는 관련되는데, 위에서 말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현재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재혼생

활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실시되어 '조직유형의 변화'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Adler-Baeder & Higginbotham, 2004; Kim, 2006; Lim, 2006).

'의사소통'에서는 가족 자체의 문화나 계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재혼가족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 전체로서 함께 도전에 대처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 및 계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녀의 적응을 위한 '자녀참여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다. 이는 가족(부모-자녀, 자녀-자녀)의 의사소통에 변화를 주면서, 역할 재조정과 같은 조직유형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동질집단을 활용한 집단상담 등의 상담프로그램의 참여 및 활용은 재혼가족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혼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질리언스 접근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도 회복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레질리언스 접근은 외부로부터의 치료적 접근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치유적 접근을 강조하며 현재의 문제해결을 넘어서서 미래의 문제 예방까지도 고려한다. 이는 재혼가족의 결함이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강점으로서 레질리언스를 강화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모형은 재혼가족의 강점을 지향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이룬 가족으로서 삶의 도전을 극복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은 현장에서의 실천가들(practitioners)과 원조 전문가들(helping professionals)에게 재혼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재혼가족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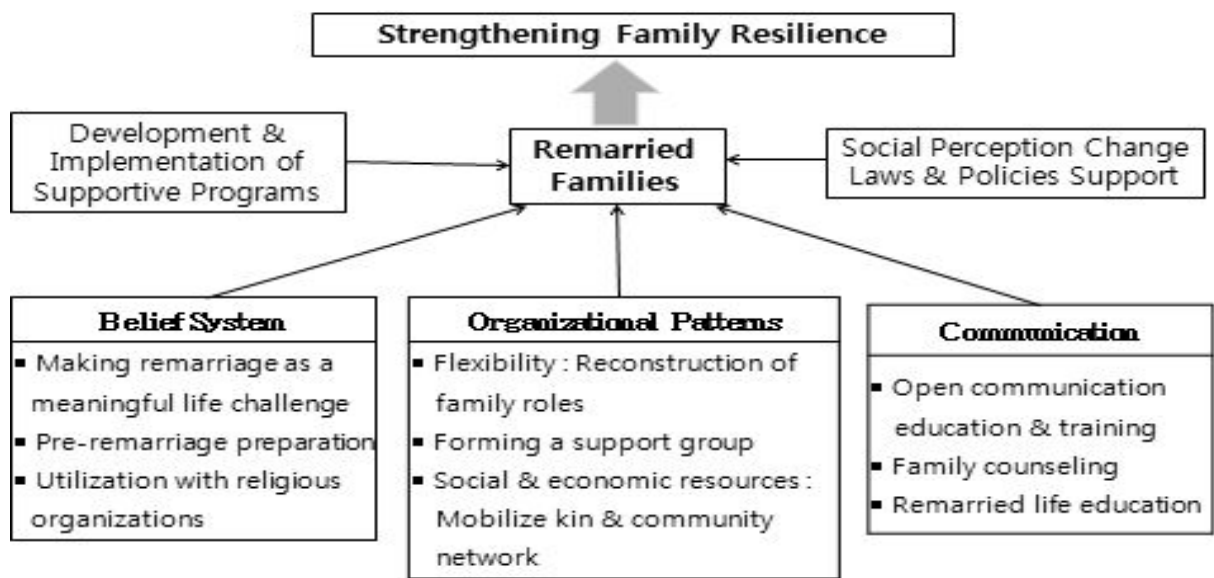


Figure 1. Practice Model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among Remarried Families

어려움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형은 장기적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본 모형의 활용은 지속적인 재혼가족의 성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재혼가족의 이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논의

재혼은 해체된 가족의 재구성으로 새로이 구성된 가족 전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가족유형으로서 재혼가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안내할 사회적 규범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혼이 또 다시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Coleman, Ganong & Fine, 2000, 2002; Kim, 2007). 이에, 재혼가족이 재혼이라는 가족생활주기의 도전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본 모형은 가족의 결함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재혼가족이 가진 강점으로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여 스스로 회복하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초혼가족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재혼가족의 어려움 및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도 정상(normal) 가족이나 전형적(typical)가족 중심의 이념에 얽매어 있어 그동안 재혼가족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abnormal)이고 비전형적인(atypical)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제 재혼가족은 부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적·혈연적 가족주의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정서적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신(新)가족주의에 기초하여 이해되어야 한다(Yang, 2005).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재혼가족 구성원에 대한 특성과 도전과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 및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재혼가족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시적으로는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모형에서 살펴본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초혼가족과 차별화되는 가족의 기능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재혼가족은 재혼이 초혼가족과 다르다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별다른 준비 없이 재혼생활을 시작하고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재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는 1998년부터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의 접수율이 낮아서 신청자가 모일 때에만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은 2005년 처음으로 재혼가족을 위한 자녀동반 캠프인 '한마음가족캠프'를 진행하였으나 그 참여가 저조하여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재혼가족 교육프로그램만 1년에 1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그러므로 재혼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 및 재혼가족의 기능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혼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위와 같이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와 더불어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재혼가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예전보다 재혼에 대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만연해 있다(Chung, et al., 2000, 장혜경 & 민가영, 2001; Kim & Ha, 2011). 재혼가족이 지닌 어려움을 연구한 장혜경과 민가영(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혼가족은 경제적 문제, 자녀의 적응문제 다음으로 '재혼가족임을 타인들이 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이후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점이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서 재혼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혼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Kim & Ha, 2011)도 감안하여 가정에서 재혼가족의 구성원끼리 진행할 수 있는 '가정 내(in-home) 프로그램'(Adler-Baeder & Higginbotham, 2004) 혹은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interactive web-based program)'의 개발(Gelatt, Adler-Baeder, & Seeley, 2010)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완화를 위해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총 혼인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재혼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TV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재혼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

하도록 해야 한다(Leon & Angst, 2005). 또한,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재혼가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서 재혼가족이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Leon & Angst, 2005). 이렇듯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토대로 한다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아울러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가족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인 제도는 혈연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되려면 호주제 폐지가 시행이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혼 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모형을 제시하여 이들이 가족으로서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재혼가족은 레질리언스의 강화를 통하여 보다 재혼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차후 재혼가족의 이혼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레질리언스 모형에 기초하여 재혼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구체적인 재혼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별 후에 재혼한 가족의 경우는 이혼한 후 재혼한 가족과는 다른 가족역동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혼가족의 연령, 전혼 자녀 유무 및 배우자의 전혼 혼인 여부에 따른 활발한 연구는 재혼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여 이들을 위한 보다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장혜영 · 민가영.(2001).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연구보고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가족상담연구소 www.consult.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
- Adler-Baeder, F. & Higgbotham, B.(2004). Implication of remarriage and stepfamily formation for marriage education. *Family Relations*, 53, 448-458.
- Bemstein, A. C.(2000). Remarriage: redesigning couplehood. 284-311. In P. Papp. (Ed). *Couples on the fault line: New directions for therapist*. N.Y.: The Guild Press.
- Boss, P., & Greenburg, J.(1984). Family boundary ambiguity: A new variable in family stress theory. *Family Process*. 23, 535-546.
- Booth, A., & Edwards, J. N.(1992). Starting over: Why remarriages are more stabl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179-194.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ter, B., & McGoldrick, M.(1999).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perspectives* (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 Ceballo, R., Lansford, J. E., Abbey, A., & Stewart, A. J.(2004). Gaining a child: Comparing the experiences of biological parents, adoptive parents, and stepparents, *Family Relations*, 53, 38-48.
- Choi, J. S.(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aged coupl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175-208.
- Choi, J. S.(2009). An explo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for adoptive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61-398.
- Choi, Y. A., & Lee, C. D.(2000). Study on remarriage of bereaved or divorced old people 2-Emphasis on successful remarriage in Chonju area-No. 2.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2), 87-108.
- Choi, Y. A.(2005). The marital process of comple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remarried people at early old ag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5), 15-42.
- Chung, H., Yoo, G., Lim, C., Jun, C., & Cheon, H.(2000).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emarried families and quality of 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4), 1-19.
- Chung, H., Yoo, G., Lim, C., Jun, C., & Cheon, H.(200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5), 1-14.
- Clingempeel, B., & Segal, A.(1987). A Multilevel -multivariable developmental perspective for future research on stepfamily. In K. Pasley, & M.Ihinger

- Tallman (Ed).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Press.
- Coleman, M., Ganong, L. & Fine, M.(2000). Reinves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88-1307.
- Doherty, W. J., & Colangelo, N.(1984) The family FIRO model: A modest proposal for organizing family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9-29
- Ganong, L. H. & Coleman, M.,(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Inc.(김중숙 역, 2003, 한국문화사).
- Ganong, L. H., Coleman, M., & Jamison, T.(2011). Patterns of stepchild-stepparent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 396-413.
- Gelatt, V. A., Adler-Baeder, F., & Seeley, J. R.(2010). An interactive web-based program for stepfamili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fficacy, *Family Relations*, 59, 572-586.
- Golish, T. D.(2003). Stepfamily communication strengths: understanding the ties that bin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 41-80.
- Gosselin J. & David, H.(2007).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8, 29-53.
- Gosselin J.(2010).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1, 108-123.
- Higgbotham, B., Miller, J., & Niehuts, S.(2009). Remarriage preparation: Usage, perceived helpfulness, and dyadic adjustment. *Family Relations*, 58, 316-329.
- Hyun, E. M.(1998). The family FIRO model for stepfamily development.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3), 53-66.
- Hyun, E. M.(2002). Development of a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mode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3), 153-172.
- Hyun, E. M.(2003). A study on the children in stepfamilies: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from family and social aspec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8(2), 101-126.
- Hyun, E. M.(2007).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y-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107-126.
- Jang, H. J.(2010).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remarriage relationship of divorces. *Family & Culture*, 23(2), 55-93.
- Jang, S. M.(2001).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odel for improving family resilience in the alcoholic family: In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lcoholism. *Mental Health & Social Work*. 11, 53-77.
- Kennedy, G. E.(1985). Family relation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rom single-parent, blended, and intact family. *Family Perspective*, 19, 117-129.
- Kim, H. K.(1997). A study on the elderly remarri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2), 127-140.
- Kim, H. S.(2006). A study on influence of stepchildren's role strain on their family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2), 187-213.
- Kim, H. S.(2006). A Study on the stepparenting styles and the adolesc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7, 57-87.
- Kim, H. S., Um, M. Y., & Park, M. J.(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marriage after divorce - focusing on Korean Immigrants with Adolescents at home in Chicago area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2), 5-28.
- Kim, H. S., & Ha, C. K.(2011). Stepparenting role experiences of step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at home. *Family & Culture*, 23(1), 137-168.
- Kim, K. S., & Lee, M. S.(2009). Family resilience in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In case of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acility for femal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1), 89-105.
- Kim, Y. J.(2011). Supportive strategies for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focusing on resilience-, *Korean Unification Studies*, 15(1), 99-129.
- Kim, Y. O.(1999). An empirical analysis on stepmothers role functioning.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 41-62.
- Kim, Y. O.(2002).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f mothers in step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9, 319-342.

- Kim, Y. O.(2004). A study on programs for enhancing remarried family function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2), 215-235.
- Kim, Y. O.(2007). A qualitative analysis of dissolution of remarri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2), 171-195.
- King, V.(2009). Stepfamily formation: implication for adolescent ties to mothers, nonresident fathers, and step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4), 954-968.
- Kwon, J. S., Shin, H. R., Kim, J. J., & Park, J. Y.(2006). *Family welfare*, Seoul, Knowledge community
- Lee, C. D. & Choi, Y. A.(1997). Study on remarriage of bereaved or divorced old people -Emphasis on successful remarriage in Chonju Area- No. 1.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2), 255-272.
- Lee, S. J. & Chun, Y. J.(2009). Analyse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remarriage: published between 1996 and 2007.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73-195.
- Lee, W.S. (2004). *Family welfare*. Hajisa.
- Leon, K., & Angst, E.(2005). Portrayals of stepfamilies in film: Using media images in remarriage education, *Family Relations*, 54, 3-23.
- Lewis, H. C.(1980). All about families: The second time around. Atlanta, GA: Peachtree.
- Lim, C. H., & Chung, O. B. (1997). The experience of the first-married stepmother's stress and adaptation to her step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73-102.
- Lim, C. H.(2006). The perception of stepfamily adolescents about their stepfamily relationship and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5), 744-760.
- Lutz, E. P.(1983). The stepfamily: 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261-280.
- McCubbin, H. L., & McCubbin, M. A. (199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Park, K. N.(1997).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married elderly's stress and adaptation to stepfamily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83-200.
- Park, C. S., & Bae, N. E. (2005). A study on the remarriage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2), 115-132.
- Park, I. J.(2007). *A case study of the family resilience of Korean divorced child: focused on the family process*. Unpublished Master degree dissertation.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T. Y., & Kim, T. H.(2010) A case analysis on remarried family with family conflic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15-28.
- Pasley, K. & Ihinger-Tallman, M.(1989). Boundary ambiguity in remarriage: Does ambiguity differentiate degree of marit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Family Relations*, 38, 46-52.
- Pasley, K., Dollahite, D., & Ihinger-Tallman, M.(1993). Bridging the gap: Clinical application for research findings on the spouse and stepparent roles in remarriage. *Family Relations*, 42, 315-322.
- Patterson, J. M.(2002). Understanding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233-246.
- Rogers, K. B. & Rose, H.(2002). Risk and resilience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24-1037.
- Sohn, B. D.(2009). A path analysis on children's aggressive and withdrawal behaviors in divorce and remarriage families: Comparison with those in non-divorce and remarriage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4(4), 113-136.
- Song, Y. S.(2006). *A qualitative research about the experience of parent/divorced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 degree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buk University. Chunllabukdo.
- Suh, J. Y.(2002).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adaptation: focusing on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 degree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 Turnbull, S. K. & Turnbull, J. M.(1977).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An agenda for discussion with stepparents. *Family Relations*, 32, 217-230.
- Visher, E. B., & Visher, J. S. (1989). Parenting coalitions after remarriage: Dynamics and therapeutic guidelines. *Family Relations*, 38, 65-70.
- Visher, E. B., & Visher, J. S.(1990). Dynamics of successful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1), 3-12.

- Visher, E. B., Visher, J. S., & Pasley, K.(2003). Remarriage families & stepparenting: Walsh, F.(2003). *Normal family process: Growing diversity & complexity*, 3rd Ed. The Guilford Press.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The Guilford Press.
- Walsh, F.(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 White, L., K. & Booth, A.(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191-213.
- Wolin, S., & Wolin, S.(1993). *The resilient self: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ut adversity*. N.Y.: Villard.
- Yang, O. K.(2005). *Family &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접수일 : 2011년 05월 16일

심사일 : 2011년 07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8월 27일